





국내외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이 21일 강릉오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7·8위 결정전을 치렀다. 기록은 논란이 잉태된 19일 준준결승보다 저조했고, 결국 최종 8위에 그쳤다. 💵 준준결승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보름 (왼쪽)과 노선영(오른쪽)이 7·8위전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. 2 '적어도' 경기 중에는 준준결승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은 볼 수 없었다. 김보름-노선영-박지우(왼쪽부터)가 나란히 달리고 있다. 3 경기가 끝난 뒤 종목 엔트리에 포함된 '예비주자' 박승희가 간절한 표정으로 어딘가를

이번엔 함께 달렸지만…입 닫은 김보름-노선영

여자 팀추월 8위로 마감…기록은 더 저조 경기 후 박지우 "죄송" 김-노 말없이 퇴장



올림픽 최악의 스캔들로 떠오르 고 있는 한국스피드스케이팅 여 자 팀추월 대표팀이 큰 관심 속

에 마지막 경기를 마쳤다.

김보름(25·강원도청), 박지우(20·한국체대), 노선영(29·콜핑팀)은 따돌림과 작전실패 논란 국내외적으로 2018평창동계 이 불거진 19일 준준결승 때보다 훨씬 저조한 기록을 냈다.

팅경기장에서 열린 폴란드와의 7·8위 결정전에

서 3분07초30을 마크하며 최하위인 8위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쳤다. 3분03초11의 폴란드에 크게 뒤진 기록이다. 김보름이 앞에서 속도를 높 여 노선영이 크게 뒤처진 가운데 레이스를 마쳤 던 19일의 3분03초76보다도 약 3초54 느려졌 한국 여자 팀추월은 21일 강릉스피드스케이 다. 이날 레이스는 세 선수가 순서대로 번갈아 선두로 나섰다. 에이스 김보름을 적극적으로 활

용했던 19일과는 전혀 달랐다.

21일 경기에는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 다. 특히 경기 후 노선영이 공동취재구역인 믹스 트존을 지나가며 취재진에게 어떤 발언을 할 것 인지 관심이 높았다.

국내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, 노선영은 쏟아지는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. 전날 한

방송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적극적으로 백 감 독의 발언을 반박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. 김보 름도 말없이 믹스트존을 통과한 가운데 박지우 만 "죄송합니다"라는 한마디만을 남겼다. 이날 경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훈련하며 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.

강릉 | 이경호 기자 rush@donga.com

이게 웬 망신…女팀추월, 올림픽 '최악의 스캔들' 비화

올림픽정신 어긋나는 파벌에 비난 쇄도 IOC 관계자 "대한체육회가 조사할 사안"

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여 자 팀추월 대표팀의 난맥상을 집중 조명하고 있 다. 아직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과 함께 문제의 경기 영상도 보도됐다. 2018평창동 계올림픽에서 개최국이 저지른 최악의 스캔들 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.

미국 전국단위 일간지인 USA투데이는 21일 (한국시간), 지난 19일 김보름(25·강원도청), 박지우(20·한국체대)와 노선영(29·콜핑팀)의 여자 팀추월 경기를 '따돌림 스캔들'로 소개하

해외 언론들 '따돌림 스캔들' 집중 보도 며 '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요 21일 강원도 평창 메인프렌스센터에서도 외신 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'고 보 도했다. 영국 BBC도 '노선영은 김보름과 박지 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4초가 지나서야 레이스를 마칠 수 있었다. 김보름은 인터뷰에서 같은 팀 선수의 경기 성적을 비난했다. 또한 울 고 있는 노선영을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'고 전 했다. 이 밖에 뉴욕포스트 등 많은 외신들이 '올 림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', '따돌림'등의 표현과 함께 한국 언론을 인용해 팀추월 사건을

> 해외 언론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평 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기 장면 때문이다. 또한 파벌, 차별,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이번 사태를 더 주목하고 있다.

들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. 올림픽 조 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 공동 브리 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. IOC 마크 애덤스 대변인은 "이 사안은 대한빙상경기연맹 혹은 대 한체육회가 조사할 사안"이라고 답했다.

여자 팀추월 스캔들은 경기 과정에서의 작전 실패였는지 아니면 의도된 차별 내지는 감정싸 움이 경기 중에 표출된 것인지 여전히 진실공방 이 이어지고 있다. 사실 여부에 따라 진실을 왜 곡한 쪽은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

가장 큰 핵심은 노선영이 스스로 세 명 중 가 장 뒤에서 레이스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것 의 진위 여부다. 스피드스케이팅 백철기 감독은

"노선영이 원해서 마지막 자리에 넣었다"고 했 지만 노선영은 "경기 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" 는 말로 백 감독의 말을 부인했다. 백 감독은 다 시 "(노선영의 말을) 혼자 들은 것이 아니다"고 재반박하기에 이르렀다.

노선영은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당초 올림 픽 출전이 무산됐을 때 연맹을 강하게 비난했다. 또한 과거 암 투병 중에도 올림픽출전을 위해 훈 련하다 세상을 떠난 친동생 고 노진규에 대한 비 통함을 담아 그동안 빙상연맹에 날선 발언을 하 기도 했다. 올림픽을 앞두고 동료인 김보름, 박 지우와 함께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공개한 것도 노선영이다.

일련의 과정 탓에 빙상계의 고질병이었던 차 별과 파벌 싸움이 재거론되고 있다. 전명규 현 빙상연맹 부회장과 그의 반대 세력이 벌이는 고 질적인 파벌 싸움의 악령이 이번 여자 팀추월팀 의 추문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. 강릉 | 이경호 기자

〈스노보드〉

믹스더블부터 빅에어까지 눈길 사로잡는 신설종목들

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수놓는 또 다른 주인 공은 바로 '신설종목'이다. 어렵사리 올림픽 관 문을 통과한 4개의 새 종목들은 이번 대회에서 뜻 깊은 데뷔전을 치르고 있다.

국제올림픽위원회(IOC)는 평창올림픽 개막 에 앞서 스노보드 빅에어와 스피드스케이팅 매 스스타트, 컬링 믹스더블, 알파인스키 팀 이벤 트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. 이는 젊은 층 공략 과 남녀평등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. 화려한 공중 묘기를 펼치는 빅에어와 단체출발로 박진감을 가미한 매스스타트는 젊은 세대들의 구미를 사 로잡을 수 있고, 혼성경기인 믹스더블과 팀 이벤 트는 여성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.

IOC의 결정은 현재로선 성공적으로 평가받 고 있다. 4개의 신설종목은 각자의 매력을 분출 하며 현장 관중들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

첫 스타트를 끊은 컬링 믹스더블은 신선한 돌 풍을 일으켰다. 태극마크를 걸고 출전한 이기정 (23)-장혜지(21) 조가 인기몰이에 성공한 덕분 이다. 비록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둘은 찰뗙 호흡을 자랑하며 많은 응원을 받았다. 여기에 믹 스더블 경기가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부터 펼쳐 지면서 독보적인 관심을 받았던 부분도 긍정적 으로 작용했다.

스노보드 빅에어 역시 성공적으로 올림픽 무 대에 안착했다. 빅에어는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한 뒤 점프와 회전, 착지, 비거리 등을 점수로 매 겨 순위를 가리는 종목이다. 경기는 보통의 슬로 프가 아닌 스키점프센터 옆에 위치한 대형 점프 대에서 경기가 열린다. 당연히 도약의 높이가 다 른 종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. 이러한 짜릿함 덕분에 빅에어 경기가 열린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에는 많은 관중이 몰렸다.

함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와 알파인스키 팀 이벤트는 같은 날 인 24일 데뷔전을 치른다. 매스스타트의 경우 한국 남녀대표팀의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아 더 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. 팀 이벤트 역시 전세계 에서 찾아온 정상급 남녀선수들이 함께 짜릿한 레이스를 펼치는 만큼 주목해볼만하다.

강릉 | 고봉준 기자 shutout@donga.com

"죄송합니다" 외친 그대들. 고개를 들어라!

그대도 챔피언

봅슬레이 원윤종-서영우 'TOP10' 성과에도 단일팀 신소정 분전에도 "죄송합니다" 자책

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 는 가운데 한국 대표팀은 순항 중이다. 분위기가 다소 침체됐던 대회 초반의 아쉬움을 털어내듯, 중반부터 연이어 메달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. 개 막 전에 세운 '금메달 8개-은메달 4개·동메달 8개 '목표에도 점점 다가가고 있다.

강릉 올림픽파크에 있는 '코리아하우스'에서 는 하루가 멀다 하고 메달리스트들의 공식 기자 회견이 열린다. 윤성빈(24·강원도청), 이상화 (29·스포츠토토) 등 각 종목의 올림픽 영웅들이 국가를 빛낸 소감과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의 기쁨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전한다.

메달리스트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구름관중 이 운집한다. 곳곳에서 사인과 사진촬영 요청 이 이어지면서 선수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

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화려하다. 특히 안방에 서 열리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조명이 더욱 더 집중되는 모양새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'성 적제일주의'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한다. 이번 올림픽에서는 선수들 스스로,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는 선수들 도 적지 않다.

남자 봅슬레이 2인승에 출전한 원윤종(33·강 원도청)-서영우(27·경기연맹)는 19일 평창 올 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3·4차 주행에서 최종 누적 기록 3분17초40으로 전체 6위에 올 랐다. 한국 봅슬레이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'톱 10'에 진입하는 대성과를 만들었지만, 그들은 경기 후 "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"고 말했다.

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 무대에 선 여자 아이 스하키 대표팀은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, 올림 픽 5경기 전패를 기록했다.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했지만 그토록 바랐던 대회 1승과는 결국 인연을 맺지 못했다. 대표팀 골리 신소정(28)은 20일에 열린 스웨덴과의 최종전 나날을 보내고 있다. 메달리스트들에게 가는 이 끝난 후 "오래 준비한 대회인데, 결과가 아



비록 주연은 아니었어도, 메달은 따지 못했어도 '팀 코리아'를 빛낸 국가대표이기에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. 여자아이스하키대표팀 골리 신소정(왼쪽 사진 31번), 남자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종-서영우(오른쪽 사진)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감동으로 물들인 주역들이다.

쉽다. 1승을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"며 고개 를 숙였다.

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막내 이유빈(17·서현 고)은 20일에 열린 여자 쇼트트랙 3000m계주 결승전에 나서지 못했다. 준결승까지 맹활약을 펼치며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에 큰 힘을 보탰지 만 팀 전략 상 결승전에는 출전하지 않았다. 겸 손한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었는데, 그는 경기 후 "메달을 따게 해준 언니들에게 감사하다. 멋있 는 경기를 해줘서 고맙다"며 겸연쩍게 웃었다. 그러자 옆에 있던 최민정(20·성남시청)이 즉시 "네가 (스스로) 딴거야!"라고 말해 믹스드존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.

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각자 자신의 종 목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는 '국가대표'다. 온몸 을 내던지며 투혼을 불사르는 이들이 스스로에 게 보다 더 당당해졌으면 한다. 빙상 여자 팀추 월 대표팀처럼 '원팀'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면, 부끄러움 없 이 최선을 다한 그대들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만 한 '최고'이기 때문이다. 비록 메달은 손에 넣지 못하고, 주인공이 아니었을지라도, 스스로 최선 을 다한 모든 선수들이 챔피언이다.

강릉 | 장은상 기자 award@donga.com